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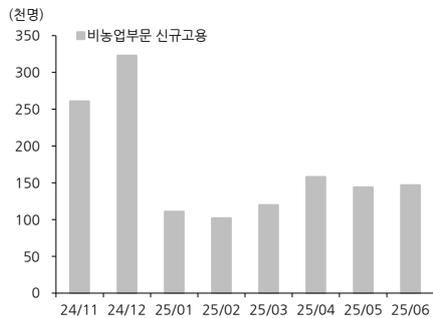
Macro Review

6월 미국 고용: 둔화 추세 유지

▶ Economist 최규호 choi.gh@hanwha.com 02-3772-7720

[주요 데이터 및 차트]

6월 비농업부문 신규고용 14.7만 명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취업의사가 있는 비경제활동인구 전월대비 증가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고용은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정부 고용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
다. 민간 고용 약화, 장기 실업자 증가 등을 고려하면 하반기에도 고용
둔화 추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민간 고용 둔화 vs. 정부 고용 증가

6월 미국 비농업부문 고용은 전월대비 14.7만 명 증가하면서 예상치 상
회. 주정부 중심으로 정부(+7.3만 명) 고용이 크게 늘었기 때문. 하지만
의료서비스(+5.9만 명)와 여가/숙박(+2.0만 명) 등 서비스업 중심으로
민간(+7.4만 명) 고용은 둔화

실업률은 4.1%로 전월대비 0.1%p 하락, 경제활동참가율도 62.3%로
0.1%p 하락. 자발적 실업이 늘어난 반면, 임시직 종료에 따른 실업과
영구적 실업은 감소

시간당 평균임금은 전월대비 0.2%(전년동월대비 3.7%) 상승. 제조업
(-0.1%)과 서비스업(+0.2%) 임금 상승 압력 동반 둔화. 주당 평균임금
(-0.1%)도 전월대비 하락 전환

달라지지 않은 둔화 추세

앞으로도 고용은 둔화될 전망. 금번 비농업부문 고용은 양호했지만, 세
부지표들을 살펴보면 고용이 강해졌다고 보기 어려움. 장기 실업자(27주
이상)와 구직단념자가 크게 늘었고, 노동시장 진입(재진입+신규진입)
인구도 감소. 실업률 하락 또한 경제활동인구 감소 영향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긍정적인 신호는 아님. 민간 구인수요는 약해지고 있음

다만 급격한 고용 위축을 우려할 필요는 없음. 자발적 실업이 증가했고
파트타임 밖에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는 취업자도 올해 가장 적었음. 취
업의사가 있는 비경제활동인구도 늘고 있기 때문에, 고용 침체 가능성
은 높지 않음. 하반기 노동시장 초과수요는 점진적으로 해소될 전망

[Compliance Not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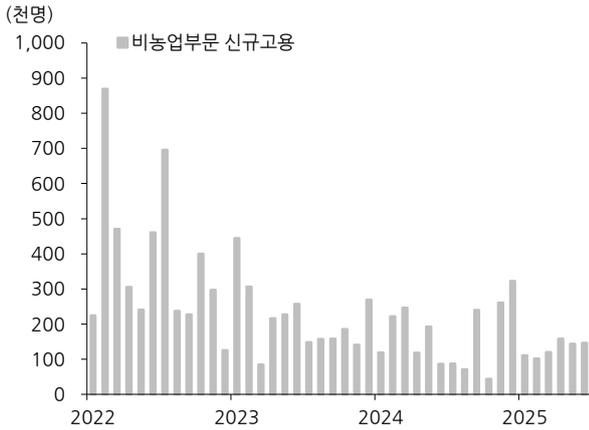
이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
포되는 자료로서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
합니다.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
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
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
용될 수 없습니다.

[표1] 미국 고용보고서 요약

(천명, %)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비농업 신규고용	71	240	44	261	323	111	102	120	158	144	147(△)
민간	33	208	-1	244	287	79	107	114	133	137	74(▽)
상품	-18	32	-50	28	4	-11	24	5	2	-4	6(△)
서비스	51	176	49	216	283	90	83	109	131	141	68(▽)
정부	38	32	45	17	36	32	-5	6	25	7	73(△)
실업률	4.2	4.1	4.1	4.2	4.1	4.0	4.1	4.2	4.2	4.2	4.1(▽)
경제활동참가율	62.7	62.7	62.5	62.5	62.5	62.6	62.4	62.5	62.6	62.4	62.3(▽)
고용률	60.0	60.1	60.0	59.8	60.0	60.1	59.9	59.9	60.0	59.7	59.7(-)
시간당 평균임금	4.0	3.9	4.1	4.2	4.0	3.9	3.9	3.9	3.8	3.8	3.7(▽)
제조업	4.9	4.6	4.6	4.4	4.0	4.2	4.4	4.7	4.4	4.2	3.5(▽)
서비스업	3.8	3.8	4.0	4.1	3.9	3.9	3.9	3.8	3.8	3.8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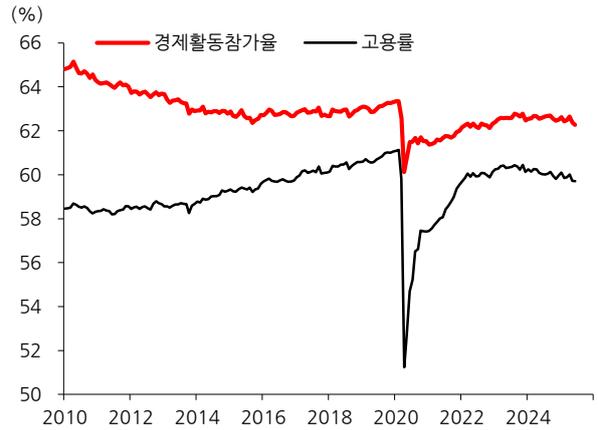
주: 시간당 평균임금은 전년동월대비 기준. 이전치 대비 상승(△), 하락(▽), 보합(-)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 비농업부문 신규고용 14.7 만 명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경제활동참가율 하락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실업률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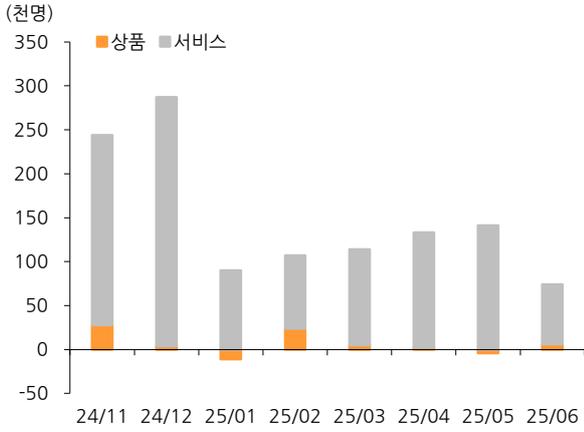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임금 상승 압력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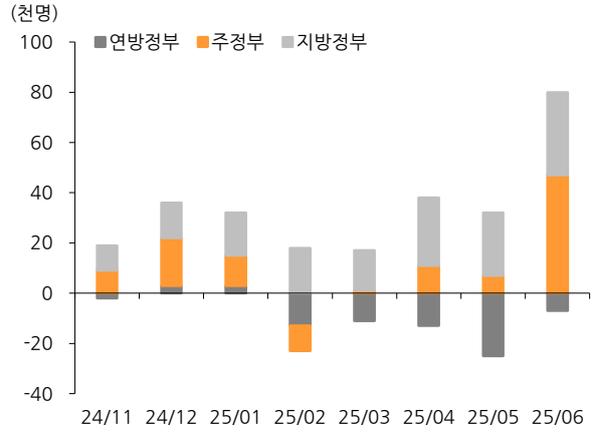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민간: 서비스업 중심으로 고용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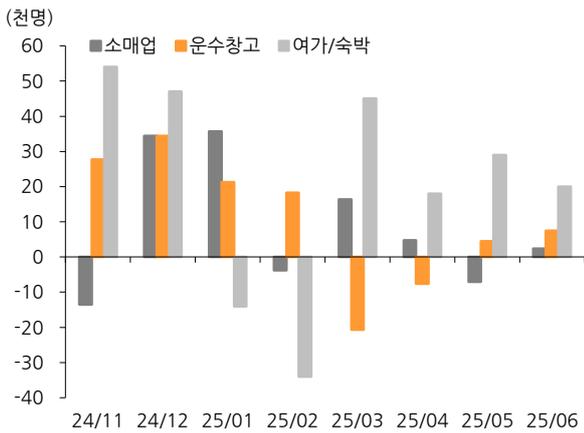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정부: 주정부 고용 반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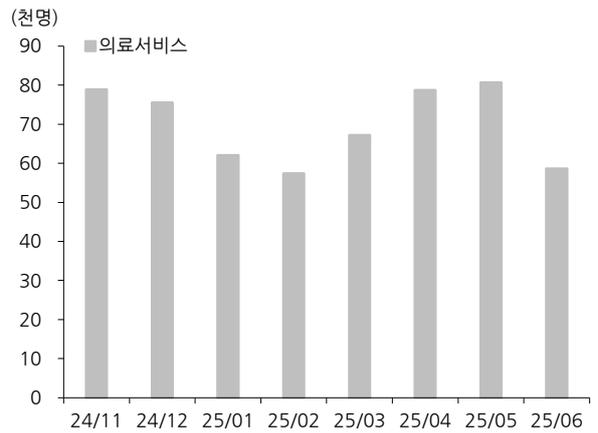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여가/숙박 고용 증가 폭이 축소됐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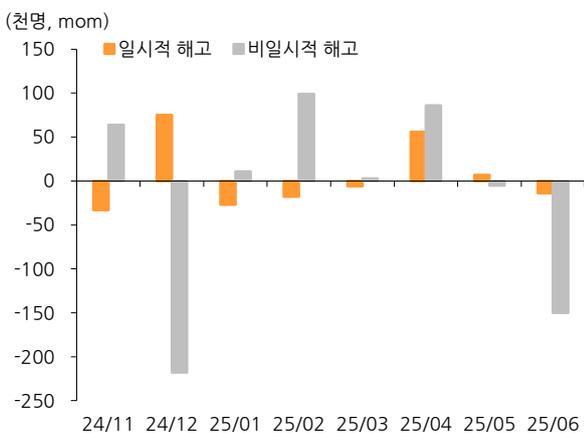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의료서비스 신규고용도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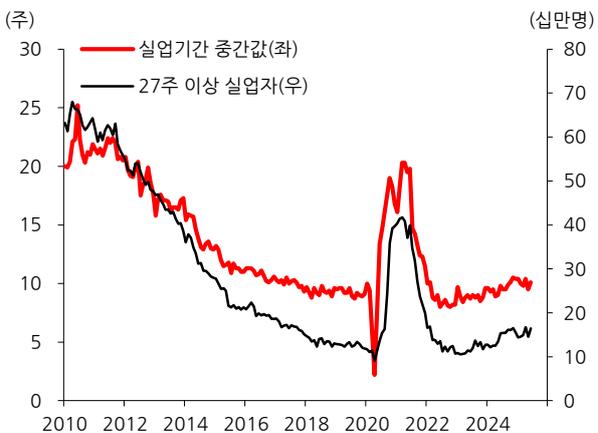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비일시적 해고가 크게 줄었지만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장기 실업자는 늘었음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